

경제난의 원인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

임을출 / 「한겨레21」 북한전문기자

본고는 주로 김일성 사망 이전인 1992년 1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김일성이 직접 행한 경제 관련 연설문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실상과 위기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다양한 경제 개발 과제는 이미 내부 자원 및 기술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역 혹은 합영·합작을 통해서든 바깥 세계와의 협력없이 체제 자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일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는 점과 1992년에 제기한 과제들이 1994년 7월 사망 직전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돼 자력 경쟁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그는 애초에 내부 자원과 기술로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1994년에 접어들면서 그가 제시한 농업·전력 문제 등은 외부 자본이나 자원への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미국 등과의 협력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에 따른 대북 경수로나 중유 지원 사업은 김일성의 유해를 실천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북한 경제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경공업, 무역,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향방은 보다 분명하다. 다행히도 김일성은 김정일시대에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만, 관심의 초점인 개방의 속도는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는 속도와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제기

이

해 접어들면서 북한 문제의 화두는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호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항진할 것인지, 아니면 침몰하고 마는 것인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조만간 시장 경제의 도

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획기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존을 모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식량 위기의 극대화·배급체계의 부분적인 붕괴로 인해 북한 사회 전반적인 일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 등을 근거로, 북한이 조만간 체제 붕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주장의 근거에는 북한이 획기적인 경제 개방·개혁 조치를 취하든 봉과 국면에 접어들든, 예측의 최대 변수를 식량난을 핵으로 한 경제난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과연 북한 경제는 회생 불가능인가, 빈사 경제가 회생하는 길은 외국과의 협력 및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부분적인 수용만이 살 길인가, 제3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등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 구조나 활동이 과거와 달리 외부에 많이 노출돼 있어 경제학자 및 관련 전문가의 분석이 이제 더 이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부분적인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북한에서 직접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구조와 문제점을 현실 밀착적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답을 구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나 관련자의 증언에 의존해서 북한 경제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왜 이토록 빈사 상태에 빠져 휘청이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으나, 명쾌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궁금한 것이 과연 북한은 스

스로 그들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점이였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경제가 위기라고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과 배경은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인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인지 등이 그 주요한 의문 사항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앞의 의문 사항이 해결된다면 북한의 경제 위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 현상의 정확한 인식은 그들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보다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주로 김일성의 사망 이전인 1992년 1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본인이 직접 정무원, 중앙인민위원회, 경제부문일꾼협의회, 재미·재일 교포, 해외 사절단 등을 만난 자리에서 행한 경제 관련 연설문¹⁾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실상과 위기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의 내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김일성 유훈 통치의 형태로 그대로 북한 경제에서 현상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제기한 여러 궁금증을 푸는 키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더구나 향후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 개발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1) 라디오프레스,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특집호"(1996. 11.15), 「북조선 정책동향」, 제12호, 1996.

농업의 문제

김일성은 정무원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먹는 문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에서 기본은 먹는 문제이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농사를 잘지어 알곡 생산을 늘려야 한다.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 식량이 넉넉해야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내놓았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²⁾ 이는 쌀이 곧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 및 존속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 농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주체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농업 용수), 종자, 비료이다. 그러나 북한은 물과 종자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 공사와 수로 공사, 저수지를 충분히 건설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갑문의 저장 용수³⁾를 관개 용수로 사용, 황해남도 연백벌과 웅진벌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종자 문제도 새 품종 개발 및 우량 품종의 수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평가한다. 벼 품종에서는 '평양 15호'가 그 성공 사례로서 거론된다.

따라서 농업 문제에 있어 향후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는 '비료 문제'로 보고 있다. 즉, 알곡은 비료를 주면 주는 만큼 나오기 마련⁴⁾이라고 생각할 만큼 비료 생산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1993년 연초에 행한 신년사에서 "물 문제와 종자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열쇠는 농촌에 비료를 넉넉히 대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데서도 재차 확인된다.⁵⁾ 따라서 화학공업부를 비롯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서는 농사를 위한 화학 비료 생산 및 적기 공급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우선, 질소 비료 생산 목표를 180만 톤으로 잡고 있다. 이 정도 양이면 과일밭을 포함해서 모든 논밭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김일성, "일꾼들은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자"(1992. 12.28), 「김일성저작집 44」, 1996, p. 27.

3) 서해갑문과 미림갑문 사이의 저장 용수는 29억 톤으로 주장, 생활 용수와 관개 용수로 사용. 이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나라(북한)는 세계적으로 수리화가 제일 잘된 나라"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한 담화"(1993. 4.5), 「김일성 저작집 44」, 1996, p. 158.

4) 김일성, "일꾼들은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자"(1992. 12.28), 「김일성저작집 44」, 1996, p. 27.

5) 김일성, 「신년사」, 1993. 1.1.

북한의 알곡 생산 목표는 1,000만 톤이다. 이들은 농촌에 비료만 제때 공급하면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질소 비료의 180만 톤 생산은 물론 인 비료 150만 톤 목표를 잡고 있다.

비료의 분배 방식에 있어서도 특히, 북한의 곡창 지대로 알려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집중적·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김일성은 지시한다. 이들 3개 도의 논과 강냉이 밭에 질소 비료를 정보당 800 kg씩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질소 비료를 공급할 경우 이들 3개 도에만 모두 50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수용 전력

김일성은 북한의 전반적인 전력 사정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양수용 전력만은 제대로 공급할 것을 지시한다. 심지어 공업 부문에서 지장을 받더라도 농촌에 필요한 양수용 전력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업이 다른 부문에 우선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전력공급체계의 말단 단위인 황해남도의 전력 사정이 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식, 이 도의 양수용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해주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시한다.

농산물 생산의 기계화

김일성은 비료 등을 포함한 영농 물자를 적기에 제대로 공급하고 논밭갈이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동차와 트랙터 공급을 지시한다. 특히, 일부 협동농장에서 자동차가 부족하여 트랙터를 이용해 장거리에서 비료를 운반하고 있어 기름이 과다하게 소모될 뿐 아니라, 트랙터 자체가 조기에 마모되어 손실이 적지 않음을 지적해 농업과 관련된 수송 시설이 부족함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김일성은 영농 물자를 나르는 데 있어 트랙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을 지시한다. 트랙터는 농산 작업에만 사용하고 모든 영농 물자 운반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이용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랙터는 협동농장 구역을 벗어나 100 리 이상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자동차로는 '승리-58'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 차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메탄가스나 초연탄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랙터는 빈번한 고장때문에 전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그래서 김일성은 생산과 동시에 이미 고장난 트랙터의 수리·정비를 빠른 시간 내에 마칠 것을 몇차례나 강조한다.

주목되는 것은 트랙터용 연료 기름의 공급에 있어서도 '봉화화학공장'에서 무조건 보장해줄 것을 지시한다. 농사는 적기가 있는 만큼

여기서 생산된 기름을 농촌에 먼저 공급할 것을 지시한다. 부족한 전력과 유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농촌에 가장 먼저 공급할 것을 지시해 김일성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농업 연관 산업: 축산업

북한에 있어서 축산 문제도 김일성이 평소 애민인의 소망이라고 강조한 '흰밥에 고기국'의 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김일성은 식료품 상점에서 주민들에게 고기와 계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다.⁶⁾

이처럼 육류 생산이 저조한 이유는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알곡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풀을 먹고 자라는 염소·토끼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를 것을 강조한다. 곡물 생산의 감소는 주민의 먹는 문제뿐 아니라, 가축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일성은 특히 농촌에서의 돼지 사육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곡물 사료와 돼지고기를 1 : 1로 환산하여 농민들에게 강냉이를 세대당 100 kg씩 주고, 100 kg짜리 돼지를 1 마

리씩 길러낼 것을 지시한다. 이때 농촌 세대가 약 100 세대이므로, 10만 톤의 강냉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대부분 사료용 옥수수였다⁷⁾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량의 상당량이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고기국을 맛보이게 하는 것도 쌀밥 못지 않게 중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업 연관 산업: 수산업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가 수산업이다. 산이 많고 농지가 150만 정보밖에 안돼 농사만으로는 주민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다는 것을 김일성은 솔직히 시인한다. 그래서 수산물 증산을 통해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우선, 강조되는 것은 명태와 정어리 등 수산물 어획이다. 그러나 이들 수산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다시마, 미역, 조개 등 바다 양식을 모색하게 된다. 다시마를 1 정보당 100 톤을 생산·수출해 7,000 달러를 벌어 1 톤에 100 달러인 옥수수를 70 톤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 증대는 곧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원양 어업, 양식업 등을 발전시킬 것이 강조된다.⁸⁾

6) 김일성, "축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수산물 생산을 늘릴 데 대하여"(1993. 9.7), 「김일성 저작집 44」, 1996, p. 201.

7)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가운데 1993년의 경우 총액 9,700만 달러 가운데 9,400만 달러, 1994년 수입한 곡물 총액 2,900 달러 가운데 2,200만 달러가 사료용 옥수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선의 노후화, 연료의 부족,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어구와 자재 등의 부족으로 인해 수산물 생산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공업 부문의 생산 정상화 문제

우선 김일성은 기존의 공업 생산 능력만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생산을 얼마든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 조직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경제 건설에서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부문은 석탄, 전력, 금속 공업이다. 특히, 석탄 생산을 강조한다. 이는 곧 전력난 완화, 금속 공업을 포함한 다른 공업 분야의 생산 정상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⁸⁾

김일성은 공업 생산 정상화의 기본 요건으로 석탄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석탄은 우선 화력발전소의 연료로서의 기능이 중요시될 뿐 아니라, 강재, 시멘트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탄을 먼저 생산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공업 부문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석탄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문이다.

더구나 김일성은 석탄 생산에 관한 한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까지 언급, 석탄 생산이 기타 공업 부문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우선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업 생산량을 사전에 예측하려면 그해의 석탄 생산량만 알아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경공업은 '식의주 문제'에서 '입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그래서 비날론 생산 등 화학 섬유 생산을 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또한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경공업 기반이 결코 허약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방직 공장, 신발 공장, 피복 공장, 식료 공장 등 필요한 공장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한 공장들은 다 갖추고 있되 설비의 노후화, 원자재의 부족으로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대외 경제 관계

김일성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과의 무역, 합영·합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체제가 망하는 길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재미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어 비록 경제 건설 과정

8) 김일성, "축산업과 수산업 발전시켜 고기와 수산물 생산을 늘릴 데 대하여"(1993. 9.7), 「김일성 저작집 44」, 1996.

9) 김일성, 「신년사」, 1993. 1.1.

에서 난관을 좀 겪는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고수해나갈 것이며, 절대로 남한처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어 인민들을 외국 독점 자본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을 것”¹⁰⁾이라고 주장해, 외국과의 경제 협력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¹¹⁾

또한 그는 합영·합작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다른 나라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이 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과의 합영·합작은 상대 국가에서 기술과 자본만 제공케 하고 기업 관리는 북한이 맡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일본 조총련계 기업과의 의류를 중심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돼온 위탁 가공 혹은 임가공 무역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이 자본주의 사고 방식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음도 알 수 있다

대외 무역 방향의 전환

북한의 전통적인 시장인 구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는 곧 북한 경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음이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 다시 확

인된다. 즉, “경제 건설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한다. 원유의 경우, 이전 구소련에서 수입하던 것이 구소련의 붕괴로 거의 중단됨으로써 승리화학연합기업소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북한의 마그네시아크링카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으로써 판로가 막혔음도 인정한다.¹²⁾

그래서 대외 무역의 방향 전환이 심각하게 모색된다. 그러나 당장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다. 특히, 이들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과 교역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끈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미국의 눈치를 받지 않는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신생 독립 국가, 제3세계 국가와의 교역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김일성은 경제 무역 관련 전문가의 양성을 강조한다.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맞게 자본주의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무역일꾼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10) 김일성, “재미 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 통일 운동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하여”(1993. 3.11), 「김일성 저작집」, 1996. pp. 131~132.

11) 북한은 최근까지도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자본주의 복귀는 곧 자멸의 길이라고 주장하! 있고,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내외통신」, 1996. 11.19, 12.2.

12)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방향에 대하여”(1993. 12.8), 「김일성 저작집 44」, 1996: 「북조선 정책동향」, 제12호, 1996.

마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역일꾼들은 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해 능란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대외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일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만히 앉아서 합병·합작 대상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다고 걱정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역 일꾼들이 외국에 자주 나가 무역과 관련된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배울 것을 권장한다.

무역일꾼들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많은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수출 유망 품목으로서 기계 공업 부문의 공작기계와 공구, 베어링을 거론한다. 이들 제품들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강재를 구입, 생산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도자기를 수출 유망 품목으로 꼽았고 이외에도 2월10일공장의 백철판, 평성합성가죽공장의 가죽 제품도 거론된다. 한편, 수입이 절실한 품목으로는 원유, 코크스, 생고무(신발 원료), 종려 기름(비누), 소금(가성 소다) 등이 열거된다.

즉, 김일성은 내부적으로 비축해 놓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적으로 무역을

발전시켜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과의 합병·합작을 발전시킬 경우 공업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 건설 문제

전력 문제¹³⁾: 발전소 건설, 원유 개발

기본 건설 분야로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금강산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 집중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강한 집착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만 건설해서는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특히 수력 발전소는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 등 기후 변동이 있을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까지 당장은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강조하게 된다. 청천강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이 그 주역들이다. 그러나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설비 보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석탄 연료의 부족으로 전력 생산이 제

13) 김일성은 “전력이 곧 생선이고 생선이 곧 전력이다”라고 역설한다. 또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 등이 조업할 수 없으며, 경제 사업 전반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김일성, “과일 생산을 늘리며 기름나무림을 많이 조성할 데 대하여”(1993. 10.4), 「김일성 저작집」, 1996; 「북조선 정책동향」, 제12호, 동경: 리디오프레스.

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¹⁴⁾

수력 발전소의 경우, 기존의 것들은 저수량의 부족으로 전력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송언연제와 금양강발전소, 금강산발전소 등이 그 주요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서두르고 있는 것이 금강산발전소이다. 북한은 지난 1986년 10월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착수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 않다가, 1996년 6월 김정일의 현지 시찰을 계기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1단계 공사의 하나인 '1백리(40 km) 대형물길굴' 공사를 완료하고 8월 18일 조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¹⁵⁾ 그러나 사실 금강산발전소의 건설은 일찍이 김일성이 전력난의 심각함을 인식, 건설의 조기 완공을 촉구해왔으나, 시멘트, 전력 등의 자재 및 전력 부족으로 마무리가 지연돼오다가 10 년만에 완공된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발전소가 북한의 전력난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일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기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이미 구소련 붕괴 이전인 8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관련 설비를 수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계획이 무산¹⁶⁾돼 어쩔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수입할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김일성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원유가 개발될 경우 사회주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 앞의 두 가지 문제가 북한으로서는 절박한 과제를 알 수 있다.

특히,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적들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면 어느 정도 난관이 예상되는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전력이 좀 긴장해질 수 있다"¹⁷⁾고 발언한 점이다. 즉, 경제 제재 조치는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를 수입해오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북미회담에 집착한 북한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부문이라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1993년 9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북미 제2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우리(북한)가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핵동력 공업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 원자로는 흑연감속로다. 당신들(미국)이 경수로를 지원하면 흑연감

14) 김일성, "과일 생산을 늘리며 기름나무를 많이 조성할 데 대하여"(1993. 10.4), 「김정일저작집 44」, 1996. p. 253.

15) 「내외통신」, 1996. 7.1, 7.3, 8.8, 9.14, 9.19.

16) 구소련 붕괴 당시 구소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기술자들이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성,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한 담화"(1993. 4.5), 「김일성 저작집 44」, p. 148.

17) 김일성, "브라질 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과 한 담화"(1993. 4.5), 「김일성 저작집 44」, 1996. p. 148.

속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바꾸겠다”¹⁸⁾고 제의, 미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다. 결국, 1994년 10월 북미간에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가 체결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대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수로 1기 완성 때까지 대체 에너지로서 중유를 연간 50만 톤씩 제공받게 된다. 북한은 대미 접근을 통해 단기적인 대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공급원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

한편, 북한에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은 1993년에 “서해에 원유가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¹⁹⁾며, 원유 수송을 위한 남포항의 확장 및 석도항의 건설까지 관련 부서에 지시했음이 밝혀져 관심을 끈다. 더구나 김일성은 원유 탐사를 위한 물리 탐사선을 만들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 것까지 지시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체 기술 및 관련 설비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²⁰⁾

북한은 지난 1975년 서해 대륙붕에서 갑판승강식 해양 석유 굴착 장치(일명 잭키식)로 탐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으며, 1986년

부터는 구소련과의 협력으로 동해에서 고정구조물 방식으로 탐사를 실시했었다. 1987년에는 물리 탐사의 실시, 1989년에는 시추공 작업 등을 실시했으며 1991년에는 6,000 m까지 시추공을 뚫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1989~91년에 걸쳐 2 개소를 탐사한 결과, 이 가운데 흥남 앞바다 수심 100 m의 대륙붕에서 양질의 가스가 매장되었음이 확인됐다. 그 이후 구소련측이 철수함으로써 상세한 탐사 결과 분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본에 대해 영상 검사 기술, 지층 탐사 기술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한 적도 있다.²¹⁾

이외에도 북한은 신포 이북의 미탐사 지역에 서방 기업의 진출을 수용, 생산된 원유의 50%를 서방측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²²⁾

향후 전망

북한은 개방폭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만, 김일성 본인이 강조했듯이 다만 개방을 해도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8) 김일성, “현 시기 총련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3. 9.10), 「김일성 저작집 44」, 1996; 「북조선 정책동향」, 제 12호, 동경: 라디오프레스, 1996. 11.15.

19) 김일성, “구월산을 고려태조왕릉을 개건할 데 대하여”(1993. 1.15), 「김일성 저작집 44」, 1996, p. 58.

20) 김일성, “당면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방향에 대하여”(1993. 12.8), 「김일성 저작집 44」, 1996.

21) 지난 9월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 때 투자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나진·선봉 투자 안내 책자 형태로 만든 장본인으로, 대내외에 관심을 끌었던 미쓰비시 계열의 동양엔지니어링(일본 이름: 도요엔지니어링)은 1993년 3월경, 전무금을 단장으로 한 3~4 명의 원유 탐사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자본주의의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쓰면 뺄아내고 달면 삼키겠다는 논리다. 따라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 개방은 지속될 것임을 김일성의 유훈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개방이 불가피한 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다양한 경제 개발 과제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미 내부 자원 및 기술로서는 그가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 혹은 합영·합작을 통해서든 바깥 세계와의 협력없이는 체제 자체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김일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2년에 제기한 과제들이 1994년 7월 사망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돼 자력 갱생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애초에 내부 자원과 기술로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 수 있다고 믿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1994년에 접어들면서 그가 제시한 농업·전력 문제 등에 있어서 외부 자본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전력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기적인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든지, 이 발전소가 건설되기 전까지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유 발전소의 건설을 지시²²⁾한 사실 등은 그가 특히 미국 등과의 협력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난 1994년 10월 체결된 북미간의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에 따른 대북 경수로나 중유 지원 사업은 북한에 있어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북한 경제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현 북한체제가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이다.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경공업, 무역,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향진해나갈 것인지는 보다 분명해지는 셈이다. 다행한 것은 김일성은 죽기 전에 김정일시대에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명분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가 남긴 경제 관련 유훈들은 외부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심의 초점인 개방의 속도는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는 속도와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統**

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근 중국·북한 경제 관계 변화 동향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안리포트 93-1호, 1993. 2.

23)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4. 7.6), 「북조선 정책동향」, 제12호, 동경: 라디오프레스, 1994.